

2023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공연 】 심의평

2023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공연예술 분야에는 총 273건이 접수되어 연극, 무용, 음악, 공연 기획 분야 총 4인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가족 서사나 청년 문제에 관한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소재와 주제의식으로 인해 해당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생애 첫’으로서 신청자의 예술적 화두와 독창적인 발상 등을 시도하는 장으로 해당 사업이 자리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때문에 무대화에 관한 차별화된 요소와 신청자의 예술적 목표나 지향점을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무대화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편, 개인 이나 단체 유형의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연극 분야의 경우 개인 부문의 사업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개인 부문으로 시도할 수 있는 무대화의 다양성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경기도 예술단체들과 개인들의 예술적 역량과 사업에 대한 구상,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으며,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자 혹은 단체의 역량과 가능성이 중요시 하였으며, 창작 준비 과정 이후의 목표와 방향성이 보다 의미 있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의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용 분야는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의식의 동시대성과 공연의 형식적 차별성, 그리고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본 신청작 중 상당수는 동시대성이 결여된 채 관성적으로 행하는 정기 작품 발표에 가까운 계획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술 활동에 있어서 ‘창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창작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예술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관객들과 어떻게 새롭게 만날 수 있을지,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지원서를 검토하며 그러한 한계에 머물지 않는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연기획 분야는 예술가와 단체의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성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경우 공연을 위한 대본, 대본이 없는 경우 명확한 컨셉에 의한 시놉시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공연장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가급적 지원신청 장르의 안배를 고려하여 특정 장르가 과도하게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전문예술 창작을 위한 최초의 시드머니가 가급적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위축된 예술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 예술인 여러분의 열정이 이번 지원을 통해 무대 위에 만개하길 바랍니다.

2023.5.9.

심의의원

김필국 (유니마코리아 이사)
이석렬 (음악평론가)
염혜원 (드라마터그)
손옥주 (공연학자)